

# '구해줘! 홈즈', 자본주의 욕망 제대로 파고들었다



장동민 의뢰인이 <만남>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천연일물적인 주거 환경을 벗어난 공간과 인테리어는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다른 이의 집과 동네를 구경하면서 '저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와 같은 즐거운 상상을 가능하도록 한다.

집이 필요한 의뢰인을 대신해 연예인들이 집을 찾아주는 대결을 펼치는 '구해줘! 홈즈'는 우리나라 도처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을 TV 앞으로 가져와 그 로망을 펼친다.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자

뉴스인 세상에 철저히 투지와 매매의 관점을 배제하고 싶거주 위주로 공간을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그 덕분에 전문가가 등장하는 부동산 TV가 아니라 부산, 망원동, 강남, 제주도, 용인, 강원도 등등 다양한 지역과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원룸, 구옥, 농가주택, 타운하우스, 탑층 복합형 구조 빌라 등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들여다보고 임대 시세를 접하는 인포테인먼트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재미요소가 복합적으로 가미된 콘텐츠다.

무엇보다 '구해줘! 홈즈'의 매력은 집을 부동산이나 인테리어의 관점의 중간에서 서서 공간과 그에 갖는

오늘날 주거 문화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그간 대표적인 부동산 입지 조건으로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 학군, 역세권 등의 조건이 아닌 다른 가치와 가능성, 가성비에 눈을 돌리도록 인도한다.

MC진인 김숙, 노홍철, 박나래 등은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예폭시로 마감한 바닥에 바닥 난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건식 화장실, 신록, 전실, 테라스 등 요즘 세대에겐 중시되는 공간과 문화 등 집 보는 재미를 다각도로 깎집어낸다. 구옥을 개조하거나 보수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의뢰인 대신해 연예인들이 집 찾아주는 대결

그런데 지난달 EBS에서 방송 구해드립니다 라는 유사한 콘텐츠의 방송이 런칭됐다. 방송을 통해 사정이 뻔뻔한 의뢰인의 집을 구해준다는 취지는 같지만 방송 구해드립니다는 자산관리 전문가 부동산업자가 한 팀을 이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 방법 등 현실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매니저먼트에 힘을 준다면, '구해줘! 홈즈'는 살기 좋은 공간에 대한 토론과 제안과 소개를 통해 현실 속에서 로망을 피워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매체와 뉴스에서 말하는 집은 늘 부동산 관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단지 아파트를 뜻하는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구해줘! 홈즈'는 이 틀에서 벗어나 집을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의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파일럿 이후 정규방송에서 나타난 변화다. '구해줘! 홈즈'는 지난 2월 설 특집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였지만 출연자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는 구성이나 대결 구조 등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의뢰인 선정과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의도에 있어서는 피드백을 반영하고 적절한 변화해 나타났다. 파일럿편은 도시에서 자리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세대에 포

커스를 맞췄다. 초저가 원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바닥에 두고, 루프탑 선호, 반려동물 친화적 주택 등 변화한 시대의 주거관을 주로 담아내려 했다. 그래서일까, 청년 세대가 적은 예산으로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제로 방영 중인 일본의 인기 예능 '시 아와세! 본비집'의 한 코너가 오버랩됐다. 출연자들이 사회초년생의 첫 주거집을 구해주는 콘셉트의 코너인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의 발견음과 도쿄의 다양한 주거 환경과 현실을 담아내 일본 내에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다. 마침 '홈즈'는 일본 최대 부동산사이트 이름이기도 하고, BGM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니 아돌만 즐겨 듣는 일본 음악들이 간간히 선곡된다는 점에서 기시감도 있었다.

그런데 정규화된 '구해줘! 홈즈'는 1회부터 청춘, 서울이란 헤시태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면서 일본의 예능과는 다른 방향과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거 관찰기로 전환했다. 의뢰인의 직업과 나이, 지역, 조건 등이 매번 다르게 등장한다. 특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제1주 특집편은 '연세'와 '풀업선' 같은

지역의 특성과 숨겨진 보물 같은 동네를 소개하면서 다소 추후해진 제주의 매력과 로망을 다시 한 번 발산하기도 했다. 즉, 청춘의 도시 생활기에 해당하는 파일럿과는 성격이 다른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로망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돌아왔다.

집 구경은 웬지 모를 환기 효과와 설렘을 선사한다. '이사를 간다면'이란 공상을 하면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고픈 욕망, 독립의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정착해서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오랜 흥미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기본적인 호기심이다.

그래서 '구해줘! 홈즈'는 바로 이 시대에 어울리는 예능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세를 반영한 확인 매물로 시청자들이 공감과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일상성을 확보하고, 남의 집 구경이란 인류 보편의 재미와 로망을 전달한다. 저성장 시대일 수록 공간과 일상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다. 그러나 출연진들이 지지 않고 발표를 한다는 콘셉트의 진정성만 잘 지켜간다면, 어떤 특정 회사나 상품의 홍보로 전락하지 않는다면, '구해줘! 홈즈'의 영민한 제작진이 불멸의 아이템을 발견한 셈이다.

## "7월 중순 신곡 발표" 멜로망스, '선물'같은 컴백 예고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멤버는 개인 활동에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약 8개월 만에 멜로망스의 활동 재개가 예고됐다. 정동환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돌아옵니다! ㅎㅎ"라는 글과 풀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김민석

남성 듀오 멜로망스가 완전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멜로망스(김민석, 정동환)는 지난해 10월 '그랜드 트윈즈 스타빌(GMP) 2018' 공연 당시 "오늘을 마지막으로 멜로망스는 당분간 공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잠정적인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에 소속사 민트페이퍼(광합성) 측은 "해체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올해 페스티벌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실제로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멜로망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웹드라마 OST '유리'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새로운 음악과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공연으로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멜로망스뿐 아니라 멤버 두 사람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음악 활동도

또한 같은 날 비슷한 배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멜로망스 공식 SNS 계정에는 두 멤버가 녹음실에서 보이는 장소에 함께 앉아 있는 뒷모습도 공개됐다.

정동환은 지난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건디미디어에서 펼쳐진 '2019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좋은 소식을 조만간 들려드릴 것 같다. 멜로망스가 7월 중순에 돌아온다. 다음에 멜로망스로 이 무대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했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OST나 프로젝트가 아닌 멜로망스의 신곡은 지난해 7월 이후 딱 1년 만에다.

이와 관련해 멜로망스 소속사 측 관계자는 "17일 '7월 중 멜로망스의 완전체 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건 한창 준비 중인 단계"라고 귀띔했다.

장기를 살린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정동환은 거미, 김민석은 친동생 김우석과 함께 각각 KBS2 음악 프로그램 '유히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도 이어왔다.

지난 2015년 데뷔한 멜로망스는 2017년 '선물'을 역주행시켜 리스너들의 관심을 받았다. '선물' 이후에

도 '질어져', '욕심', '동화' 등의 히트곡을 만들며 센터멘털 피아노 팝이라는 자신들만의 색깔을 꽃피웠다. 이에 멜로망스가 직접 알린 8개월 만에 컴백은 그간의 해체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대표곡 제목 그대로 '선물'처럼 다가올 전망이다.

도 '질어져', '욕심', '동화' 등의 히트곡을 만들며 센터멘털 피아노 팝이라는 자신들만의 색깔을 꽃피웠다. 이에 멜로망스가 직접 알린 8개월 만에 컴백은 그간의 해체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대표곡 제목 그대로 '선물'처럼 다가올 전망이다.

## '미스트롯' 시즌2 '미스터 트롯' 제작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이 시즌2인 '미스터 트롯'을 제작한다.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은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뽑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하는 등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잡아내었다.

이와 관련 '미스트롯' 제작진은 '미스트롯' 종영 전부터 쏟아진 시청자들과 각계의 제작과 시청 요청에 부응, 시즌2 '미스터 트롯' 제작을 결정했다. 이에 불모지라 여겨졌던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대거 발굴과 함께, 송가인의 뒤를 잇는 '100억 핫메'를 찾아 나서는 것, 남진, 나훈아를 잇는, 화끈한 뽕뽕로 무장한 초대형 국민 트로트 가수의 등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스터 트롯'은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 참가자들에게까지 기회를 열어줄,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각별한 열망을 가진 참가자들을 찾아,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트로트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미스터 트롯'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트로트 가수를 뽑우는 1045 남성들 모두에게 참가 지원금을 이번 달부터 받는다.

## 파트1 끝 '아스달 연대기', 7%대 회복 →파트2 흥망 열쇠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 박상연 연출 김원석)가 어렵게 시청률 반등에 성공하며

파트1(부제: 예언의 아이들)를 마무리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6일 방송된 '아스달 연대기' 6회분은 시청률 7.226%(전국기준, 유료플랫폼 제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기록한 자체 최저 시청률 5.787%보다 1.4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6~7%대를 기록하던 기존 기조를 이어받은 성적이다.

다만, 아쉬움은 분명 남는다. 파트1을 마무리하는 회차인 6회분에서 큰 시청률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아스달 연대기'에 부

이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시청자들이 다시 '아스달 연대기'로 돌아올지, 아니면 기존 시청률 패턴만 유지한 채 파트2도 아쉽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제 '아스달 연대기' 흥망은 파트2에 달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파트2 결과에 따라 파트2(부제: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도 그 영향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현재 파트3 편성은 미정이지만, 올해 하반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모든 촬영이 마무리됐기에 편집만 남은 상황. 따라서 파트2 전개 방식에 따라 파트3에 대한 관심도 달라진다.

과연 '아스달 연대기'는 제작비 540억 원을 쏟아부은 의미를 되찾고, '실현 실패작'이 아닌 '노전의 아름다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파트2가 시작되는 7회분은 관심이 쏠린다.

## 오늘의 순세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음력 5월 16일)

<p>▶<b>☞</b> 계획한 일이 부진하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진하면 대성할 수. 양보하는 태도로 언행을 조심함이 좋다. 남자는 여성의 유혹에 빠지면 헤어내기 힘들다. □, △, ☆성씨는 진실이 통할 때이다. 북쪽이 힘 있다.</p>	<p>▶<b>☞</b> 부담스럽고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보증이나 문서관리에 조심해야 하며 언행에도 신중해야 한다. 가정은 애정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있다. □, △, ☆성씨 우비무한이다. 뱀, 원숭이, 돼지, 닭피가 좋다. 푸른색이 길.</p>	<p>▶<b>☞</b>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면은 강하나 자신감이 약해져 올상이다. 항상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낀다. 지금 당장은 변모된 모습으로 성의를 대해 마음을 전달할 때. 단 투기만은 삼가라. 3, 7, 9월생 자녀친 신경으로 신병수.</p>
<p>▶<b>☞</b> 지금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지만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어수선한 주위를 냉정하게 정리함이 좋을 듯.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한 사람만 선택함이 좋겠다. 7, 9, 11월생 노란색 삼가고 신경은 뚝.</p>	<p>▶<b>☞</b>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 조여 있던 나사가 풀릴 듯하다.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있다. 북쪽에서 행운이 올 것이다. 5, 7, 11월생 가정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 유념할 것.</p>	<p>▶<b>☞</b> 자녀들이 어렵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 오늘은 가정의 귀중함을 알아야 할 때. 자녀들 인해서 자존심 상할 일 있을 듯. 애정은 금전문제로 다툼 예상. 사랑하는 자라도 점검해 볼 필요 있다. 토끼, 용, 돼지띠의 마음이 상했다.</p>
<p>▶<b>☞</b> 새로운 각오로 앞일을 설계하라. 열정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실수를 계기로 반성하고 후회 없는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 □, △, ☆성씨를 조심하고 직장인은 자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사를 듣는다. 회색이 행운.</p>	<p>▶<b>☞</b> 시작은 어려우나 결국 좋은 성과가 있겠다. 중개업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이 올랐고 귀인이 돕는 운수다. 애정에는 자신을 갖고 상대에게 힘을 주어야. 공직자는 책임 완수. 투기는 금물. 서, 남쪽이 길 방향.</p>	<p>▶<b>☞</b> 항상 욕심이 앞서니 득이 없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실천부터 하라. 자녀들의 건강에 유의하라. 북, 동쪽에 귀인이 있다. 어려움을 상의할 것. □, △, ☆성씨 삼각관계의 중간에서 애정도 금전도 눈치 싸움하는 격. 지혜로운 판단 필요.</p>
<p>▶<b>☞</b>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같은 부담을 준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계산은 정화해야 한다.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법이니 주위를 의식하지 말 것. 투자는 식품계가 길하다. □, △, ☆성씨는 형제 간 의견대립에 주의.</p>	<p>▶<b>☞</b> 사소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개별히 신경을 써야 할 운이며 자녀친 간섭보다 세심한 사랑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로 감싸주는 것이 좋겠다. 서, 북쪽 친구를 조심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다. □, △, ☆성씨는 갈 길이 멀다.</p>	<p>▶<b>☞</b> 자신을 잃고 태만하다가 자기 배당도 못 받는 격이다. 자만심은 금물이며 가족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현명한 자세다. 애정적으로 구실이 크겠다. 2, 9, 11월생 등허리에서 콩 퉁다. 동업자와 의견충돌.</p>